

-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(경제농업분과) - 2019년 제1차 정기 분과회의 결과

I 개 요

- 일 시 : 2019. 3. 13.(수) 14:00 ~ 16:30
- 장 소 : 시청 중회의실
- 참 석 자 : 19명
 - 위 원(13) : 강마야, 김병노, 박도준, 박순석, 서정민, 왕정수, 이민정, 이병준, 이상백, 임운혁, 장인석, 정한칠 (분과위원장), 기업경제과장(간사)
 - 관계공무원(6) : 경제정책팀장, 산업입지팀장, 농정과 조상민 주무관, 아산푸드팀장, 학교급식지원팀장, 정책기획팀장



II 주 요 안 건

- 민선7기 주요 · 부진 공약 설명 및 자문
 - ① 음봉지역 악취 해소를 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추진
 - ② 친환경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
 - ③ 로컬푸드 확대, 지역 내 도농교류 추진
- 2019년 경제농업 분야 주요 정책과제 설명 및 자문
 - ① (농업분야) 아산시 푸드플랜
 - ② (경제분야) 경제위축 극복 주요시책 현황
- 분과별 정책과제 개발 착수 협의(자체 토론)

III

회의 결과

□ 공약 분야 주요의견

- ① 음봉지역 악취 해소를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추진
 - 산업단지 조성 시 교육, 교통,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사전에 계획
- ② 친환경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
 - 양적인 확대가 아닌 질적인 면을 고려한 친환경 농업 확대
 - 수요와 공급 고려, 비교 우위의 농산물 선택 재배 등
 - 목적성을 둔 공약목표 재분배 필요
 -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필요
 - 친환경농산물광역센터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(강점, 보완사항 등)
- ③ 로컬푸드 확대, 지역 내 도농교류 추진
 - 로컬푸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분석 선행
 - 로컬푸드 품질 표준화 및 가격·공급의 안정성 확보
 - 지역 내(동부-서부)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
ex. (서부지역) 체험시설 설치, (동부지역) 다수의 시민 이용
 - 로컬푸드 온라인 유통망 확대
 - 가치적 요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
 - (초)미세먼지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
- ④ 농업 분야(친환경농업, 로컬푸드, 푸드플랜) 공통사항
 - 적절한 가격과 판로, 농가소득의 연계방안 마련
 - 정책과의 연계성 고려 추진 ex. 공공급식으로의 로컬푸드 확대 등

□ 정책과제 분야 주요의견

- ① 아산 푸드플랜
 - 지나친 복지 푸드플랜 지양, 균형 있는 계획 수립 필요
 - 고향사랑기부금, 목적형 크라우드펀드 도입 등 추가 검토
 - 원료 중심의 농산물이 아닌 가공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과 연계한 푸드플랜 필요

□ 기타 의견

- (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) 영인산 어드벤처 코스 개발, 민속박물관 및 선문대학교의 유물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박물관 신설 등

붙임 : 회의록 1부. 끝.

발 언 자	내 용
간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금부터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경제농업분과 2019년 제1차 정기 분과회의를 시작. • 먼저 정한칠 분과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음.
분 과 위 원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인사말씀)
간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2019년 더 큰 시정위원회 운영계획 설명. (설 명)
간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어서, 경제 분야의 2019년 주요 정책과제인 경제위축 극복 주요시책 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. (설 명)
간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으로, 경제농업 분야의 민선7기 공약 중 다소 부진하거나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. •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공약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의 설명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질의 또는 자문해 주시기 바람.
분 과 위 원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러면, 미래전략과 정현모 산업입지팀장님 음봉지역 악취 해소를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추진 건 설명 바람.
산 업 입 지 팀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약 설명)
분 과 위 원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위원 의견 요구)
박 도 준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가 3,355억 원인데 민간자본 유치 목표 비율인지?
산 업 입 지 팀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총 사업비로 보상비가 50%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이며,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임. •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, 시에서 20% 정도를 현물로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 시 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억 정도는 시에서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임.
이 민 정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산업단지를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이유가 악취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, 성별영향평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있는지?
산 업 입 지 팀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재 지정계획만 반영하여 추진된 사항이며, 인근 할렐루야 농장(약 8 천두)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접한 5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의 집단민원·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음. • 추후 개발계획 및 유치업종이 확정되면 성별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.
이 병 준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양수익은 (주)라인건설에서 가져가게 되는지?
산 업 입 지 팀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통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며 시에서 지분참여를 할 경우 참여율(20% 예정) 만큼의 수익을 가져오게 됨. • 참고로, 산업단지는 기업체 유치,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법적 이윤을 10%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져갈 수 있음.

발 언 자	내 용
이 병 준 위 원	• 공개입찰 시 10%를 넘어서면?
산 업 입 지 팀 장	•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하게 되어 있으며 이윤 창출은 보통 공동주택이나 지원시설에서 가능하나 법 상 산업시설의 비율이 50% 이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이윤이 많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임.
분 과 위 원 장	• 산업단지 조성 후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업종은? 구로 디지털단지와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는지?
산 업 입 지 팀 장	• 전자 쪽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지가가 비싼 서울 지역은 건물을 고층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건축비도 상당하며, 지방에서는 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단층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.
분 과 위 원 장	• 인주산업단지로 (주)라인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치하게 될 업종은?
산 업 입 지 팀 장	• 전자(현대자동차 관련 전자부품) 쪽 관련 업종이며, 음봉은 삼성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을 유치할 계획임.
왕 정 수 위 원	• 산업단지 조성 시 교육, 교통, 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사전에 계획해야 함. 단, 조성원가 낮추기에 애쓰다 보면 제대로 된 시설이 나올 수 없음.
분 과 위 원 장	• 아산시의 GRDP가 8천8백여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.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.
산 업 입 지 팀 장	•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음.
분 과 위 원 장	• 아산시는 삼성과 현대가 산업부분에서 큰 자산인데,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들이 위축되다 보니 지역 내 산업 리스크가 큼. 새로운 성장산업, 미래산업을 아산시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?
산 업 입 지 팀 장	• 아산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임. 이에, R&D 집적지구 유치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하고 있음.
분 과 위 원 장	• (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) • 다음은, 농정과 이명식 친환경농업팀장님 친환경 농업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 건 설명 바람.
조상민 주무관	•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조상민 주무관임. 당초 팀장님께서 참석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조상민 주무관	• (공약 설명)
분 과 위 원 장	• (위원 의견 요구)
임 윤 혁 위 원	• 친환경농산물광역물류센터가 충남도 사업과 충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?
조상민 주무관	•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남도 계획이 아산시 푸드플랜 내 교육, 직거래장터 등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. 아산시 푸드플랜은 지역 내 농산물의 지역 내 공급, 적당량 재배를 통한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이 목표인데 농가에서 한 곳에 꾸준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다면 아산시 푸드플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.
임 윤 혁 위 원	•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광역물류센터 유치는 어렵다는 것인지?

발 언 자	내 용
조상민 주무관	• 단점을 보완해서 유치 예정이나,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재검토 중임.
이 민 정 위 원	• 광역물류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는 없는지?
조상민 주무관	• 아산처럼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예산, 부여, 홍성 등이 적극 찬성하고 있음.
이 민 정 위 원	• 강점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?
조상민 주무관	• 그 부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임.
분 과 위 원 장	• 세계적으로 유기농 농산물 소비가 증가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크지 않음. 아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.
박 도 준 위 원	• 유통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함. 공약의 목표가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인데 규모만 확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과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 해야 할 것임.
분 과 위 원 장	• 잉여 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. 비교 우위에 있는 농산물을 선택하여 재배하면 효과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임.
강 마 야 위 원	• 친환경농업, 친환경물류센터, 푸드플랜 등이 결국은 연결되는 프로세스임. 판로, 가격문제, 농가소득으로의 연계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농업의 확대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결시켜야 함.
장 인 식 위 원	• 친환경농업의 73%가 수도작이라고 하였고 공약목표를 설정하긴 했으나 목표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음.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수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 면적확대는 의미가 없음. 과거의 식량작물이었던 쌀을 원료인 쌀과 구분하여 원료단지를 만들고 가공기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목적성을 둔 공약목표 재분배 필요.
조상민 주무관	• 공약목표는 쌀 이외의 다른 품종을 친환경으로 늘려가기 위한 재배 면적이며, 다품종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게 최종 목표임. • 현재, 아산시 친환경 쌀은 한살림, 푸른들영농법인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단순히 쌀 확대는 원하는 바가 아니기에 특용작물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.
임 윤 혁 위 원	• 친환경농산물이 한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켰다가 신뢰를 잃은 상태.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있도록 마케팅과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음.
이 병 준 위 원	• 친환경농산물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있다면?
조상민 주무관	• GAP, 유기농, 무농약 인증은 농림부 소속의 농산물품질관리원, HACCP은 식품안전처에서 인증. 모두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인식은 있으나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의 어려움으로 HACCP 인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음. •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음.
분 과 위 원 장	• (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) • 다음은, 유통지원과 이종민 아산푸드팀장님께서 로컬푸드 확대, 지역 내 도농교류 추진 건 설명 바람.

발 언 자	내 용
아산푸드 팀장	• (공약 설명)
분 과 위 원 장	• (위원 의견 요구)
임 윤 혁 위 원	• 18년 기준 로컬푸드 매출이 61억 원.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?
아산푸드 팀장	• 농가들이 직접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고 직매장을 판매 수수료를 얻는 구조임.
임 윤 혁 위 원	•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산은 많은 편.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예정인데, 실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.
아산푸드 팀장	•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임.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. 직매장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,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음.
임 윤 혁 위 원	• 아산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편차가 매우 큼. 지역 내 도농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해 주셨으면 함. 예를 들어, 신도시 주민들이 선장에 와서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.
아산푸드 팀장	• 민선7기 공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계속하여 노력하겠음.
왕 정 수 위 원	• 차이는 있겠지만 로컬푸드가 가격적인 면에서 비싸다고 생각함. 품질과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소용 없음. 품질 표준화·특성화가 필요.
임 윤 혁 위 원	• 직매장의 또 다른 문제가 공급의 안정성 문제 임.
아산푸드 팀장	• 말씀하신 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. 연중 공급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공급자와 공급자를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음. • 품질 좋은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가교육 등을 통해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임 윤 혁 위 원	• 친환경농업, 푸드플랜, 로컬푸드 등 사업이 묶일 수 밖에 없음. 예를 들어,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으로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로컬푸드로 확대. 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.
이 병 준 위 원	• 로컬푸드 자체가 만만하지 않음.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장을 확대하는 것이 로컬푸드 확대는 될 수 없음.
분 과 위 원 장	• 로컬푸드 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코너 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음.
박 도 준 위 원	• 최근 '컬리'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음. 대부분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기에 가격이 비싸 유통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. 그렇다면 굳이 오프라인 매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통망을 온라인으로 확대 하여 가격은 좀 더 싸게 하고 근거리 지역은 배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음.
강 마 야 위 원	• 로컬푸드는 소비자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(마일리지, 탄소 배출 등)도 고려해야 함. 일반 경영에서 말하는 창구의 다양화와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음. 가격적인 면보다는 의식 있는 소비자의 적절한 소비가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, 아직은 로컬푸드에 대한 의식수준이 다소 부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반된 경향.

발언자	내용
장인석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비환경이 극변하고 있는데(더 간편하고 더 편리하게), 로컬푸드는 가치적인 요소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임. 가치적인 요소가 소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없음.
박도준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비자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가치가 있을 경우 소비를 함. 로컬푸드가 가치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갭은 더 커질 것임.
장인석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른 지자체가 로컬푸드를 다 하고 있음. 쉼터 등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가 필요.
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시장이고 생각함.
임윤혁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함.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로컬푸드에 (초)미세먼지에 대한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.
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) • 다음은, 유통지원과 안충섭 팀장님 아산시 푸드플랜 건 설명 바람.
학교급식지원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정책과제 설명)
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위원 의견 요구)
임윤혁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,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각각의 정책들의 세부사항을 잘 챙길 필요가 있음.
장인석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성과 목표성은 좋지만 지나친 복지 푸드플랜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.
박도준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은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투입되는 예산비율과 목표 간에 괴리가 있어 보임.(계획 상 자체소비 비율이 거의 50% 이상이고 소비 확대·유통·교육 등에 투자하는 비율이 10% 미만인데 목표는 농산물 이용 70%, 소비확대 1,000억)
이민정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푸드플랜 안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, 목적형 크라우드펀드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분과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) • 다음은,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자체 협의 건을 진행하겠음. 오늘은 첫 시간으로 위원 소개, 근황 등을 나누면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함. • (시계 방향으로 위원 발언)
이민정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 쪽 주요시책에 대한 충남도 동향 등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에서 제공 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시 공유하도록 하겠음.
이병준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요원으로 활동 중.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음.
이상백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산시 주요 정책들이 복지, 농업 등에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함.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을 역임했었고 지금은 (사)충남소상공인연합회 쪽 컨설팅을 맡고 있음. 기업, 경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함.
임윤혁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를 통해 도농이 교류했으면 함.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비하여 농업이 다소 소외된 느낌. 아산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음.

발 언 자	내 용
정 인 식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농업을 과거의 농산물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됨. 과거의 원료 중심의 생산이 아닌 즉석밥 등 전처리 과정을 통해 메뉴별 다양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푸드플랜이 필요.
왕 정 수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산은 좋은 자원이 많으며 문화가 경제라고 생각. 영인산 어드벤처 코스 개발 및 민속박물관과 선문대학교의 유물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박물관 신설을 제안함.
서 정 민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화가 없는 아산은 살아남을 수 없음. 경제성과 효율성이 접목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접목한 농업 정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.
박 순 석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산에서 태어나 타 도시에서 살다 돌아옴.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과 관련하여 주부의 입장에서 아산시민이 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만들어 졌으면 함.
박 도 준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느 한 가지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음. 아산지역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데 그만큼 폐업한 기업도 많음. 실업자, 구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하드웨어, 문화 콘텐츠, 홍보 등의 복합적인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다했으면 함.
김 병 노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, ICT 기술 쪽에 종사. 오늘 생소한 정책들이 많았는데 많이 공부하면서 관련한 정책 수립이 보탬이 되도록 하겠음.
강 마 야 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산시 실정을 많이 모르고 이야기 하는게 다소 우려스러운데 농업 쪽 아이디어 도출에 신경 쓰겠음. 농업 영역만이 아닌 외형적 확장을 위한 연구에 힘쓰겠음.
분 과 위 원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 활성화, 건강한 사회적 경제 육성, 도시마을 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주제들이 앞으로 분과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함. • 회의시간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모두 고생 많으셨음.